

“There is no meme, I love you.”

황재민

“There is no meme, I love you.”라는 밈 템플릿이 있다. “밈은 없어, 사랑해.” 정도의 뜻이 될 테다. 이것은 밈에 대한 밈이다. 밈은 언제나 농담과 진심을, 거짓과 진실을 뒤섞어 뗀다. “밈은 없어, 사랑해.”는 밈의 교묘하고 고약한 허위성을 갑작스러운 환대의 언어로 뒤바꾸는 수작이다. 인터넷에서 우리는 항상 묻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혹시 밈인가? 의심할 필요 없다. “밈은 없”으니까.

드물게 효과적인, ‘웃긴’ 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밈은 곧 유명해졌고 그 경위는 전혀 웃기지 않았다. 2023년 5월 11일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위터(현 X) 계정에 이 밈을 업로드했다.¹ 머스크는 재미도 없고 유행에도 뒤쳐진 밈을 시도 때도 없이 공유하며 낄낄거린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 밈을 업로드한 사건(사건?)은 갑작스레 경제 뉴스를 장식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가 NFT 밈을 트윗했다.”² “밈은 없어, 사랑해.” 템플릿은 언젠가부터 특정한 NFT 커뮤니티가 일종의 내부자 농담으로 차용하여 자기들끼리 반복해 오던 농담이었던 것이다. 머스크의 트윗 이후 그 NFT의 가치는 수백 퍼센트 상승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이상으로 폭락했다.

흔한 풍경이다. 이른바 ‘웹 2.0’ 이후, 밈을 이해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는 자본의 논리와 완벽하게 맞물렸다. 사람들은 ‘쓰레기 코인(shitcoin)’을 홍보하기 위해 밈을 공유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하기 위해 밈을 사용한다. AI 슬롭 이미지가 기이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뒤덮기 한참 이전부터 밈은 이미 나름의 방식으로 죽음을 맛왔던 것이다.

전다화의 개인전 《나, 웃긴 짤들, 엄청난 슬픔》(2025)은 밈이 끝난 그곳에서 시작한다. 과거 전다화는 이른바 ‘커스드 이미지(cursed image)’를 그려내곤 했다. ‘커스드 이미지’ 역시 밈의 일종으로,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지고 불편한(disturbing), 저화질의 인터넷 이미지를 지칭한다.³ 누가 촬영하고 업로드했는지 알 수 없고 그것이 인터넷의 어떠한 층위를 떠돌다 어떻게 나에게까지 도달했는지 전모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장소에 무언가 있고 무언가 있어야 하는 때에 아무것도 없는’(마크 피셔) 방식으로 ‘으스스한’ 이미지였다.

전다화는 그것을 그려내면서 으스스함을 결정화했다. 이는 하나의 부족 문화를 환기하는 작업이기도 했을 것이다. 인터넷 문화에 친숙하지 않은 이에게 ‘커스드 이미지’란 독특하고 이상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반면 인터넷 문화에 절여진 누군가에게 ‘커스드 이미지’란 이미 어딘가에서 마주친 적 있는 것으로, 희미한 기억과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었다. 그림으로 그려진 ‘커스드 이미지’는 동종의 방식으로 ‘저주받은(cursed)’ 인터넷 외톨이들을 호명하여 멈춰 세우기 위한 정동의 저장소로 기능했다.

¹ <https://x.com/elonmusk/status/1656326406618619910>

² Andrew Hayward, "Elon Musk Tweets Miladys NFT Meme — Price Predictably Pumps", *Yahoo Finance*, 2023년 5월 11일,
<https://finance.yahoo.com/news/elon-musk-tweets-miladys-nft-163927718.html>.

³ https://en.wikipedia.org/wiki/Cursed_image

그러나 인터넷을 향한 자본의 경작이 거의 완료된 지금의 인터넷에서는 으스스함과 같은 정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커스드 이미지’가 시뮬레이션했던 신비감이나 위화감 같은 것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월드 와이드 웹이 공개되고 35년 가량 지난 오늘날의 시점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것이 파르마콘이 아니라 완전하게 독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것 같다.

그렇기에 《나, 웃긴 짤들, 엄청난 슬픔》에는 ‘커스드 이미지’가 없다. 그것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없기 때문이다. 전다화는 밈의 한복판에서 이탈하여 가장자리 혹은 경계 지점으로 향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터넷을 순환하는 이미지 중에서 누군가 직접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례, 그러면서도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포함하는 듯 보이는 사례를 골라내어 그렸다. 또한 작가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함께 그려내었다. 무의미한 밈의 네트워크 순환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이 현실과 접합되는 우연한 장소를 찾아내고자 했고, 나아가 만들어내고자 했다.

‘우리’는 밈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가짜 노스텔지어에 온통 시달리던 이들이 밈에 대한 ‘진짜 노스텔지어’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일까? 《나, 웃긴 짤들, 엄청난 슬픔》은 두 가지를 요청한다. 밈 노스텔지어라는 거짓말 같은 향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동을 찾아 그리고, 그 정동 아래 모일 수 있는 임시적인 장소를 만들기. 그리고 그렇게 모임으로써, 노스텔지어에 시달리는 것을 그만두고 밈을 넘어 어디론가, 가능하다면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웃긴 짤들”은 “엄청난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나 바로 그 “웃긴 짤들”이 유통되는 공간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대결하고 분리되고 서로를 싫어하며 우울해진다. 그럼에도 여기서 인생의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해 버린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오직 슬픔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관계가 있다.

“밈은 없어,” 그럴 지도 모르겠다. “사랑해.” 아니, 여기선 슬픔만이 가능하다.